

[가정공동체축제] 아버지의 중요성

[본문: 창 2:7~23]

짐 그래함 목사 / 1999 / 페이지 수: 4

서론으로 10가지 사항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남자를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흙을 취해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로부터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남녀를 다르게 창조하셨고 기독교인 아버지로서 자신의 근원이 어디인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게 창조되었지만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에서는 남녀가 서로 다른 방법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성론자들은 창세기 2장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는 이 두가지 견해가 같이 있습니다. 성경은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나 서로 다르다고 말합니다.

셋째 남자는 책임감을 가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아버지는 책임감을 가져야 할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반면에 여자는 그것에 대해 반응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교회가 그리스도께 대하듯 아내가 남편을 대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넷째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동이랄나 성으로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으로서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해야합니다. 이것은 매우 간단하고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성에 대한 개념이 아주 희미하게 되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성의 불확실성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창조주입니다.

다섯째 남성과 여성의 대립은 이 사회에 가장 중요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서구사회에서는 성의 불확실함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것으로부터 많은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섯째 남자와 여자는 서로가 경쟁상태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상태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그 아내와의 협조의 관계를 찾아나가야 합니다.

일곱째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가정의 머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장이 된다는 것이 군림하고 지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처럼 그리스도가 교회에 하듯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고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된다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

고 군림한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섬기고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아버지가 머리가 되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여덟째 그리스도인 아버지는 세상의 요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계시되는 말씀을 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1백퍼센트 남자가 되고 결혼하면 남편으로서의 일을 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기 시작하면 최선을 다해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아홉째 기독교인 가정은 사회에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이 사회가 기독교 가정에 영향을 주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과 계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열째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모든 문제들이 은혜와 겸손함 가운데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으로 아버지들에게만 주어지는 과제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리스도인인 아버지에 대해 2가지 근본적인 주제에 대해 나누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 아버지의 책무

첫 번째 주제는 그리스도인 아버지의 책무입니다. 그리스도인 아버지들은 자신의 책무를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로서 우리는 여섯가지 분야의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에 대한 책임입니다. 우리는 간혹 육신은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우리 몸에 대한 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몸이 구속받고 부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 속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육신의 중요성을 낮출 수 없습니다.

사도바울은 우리에게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같은 말씀에서 사도바울은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12장은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2장까지의 놀라운 계시의 말씀인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 말씀하시고 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주 철저하게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의 3분의 2를 인간의 육체적인 필요에 관한 것에 사용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들에게 음식을 주셨고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육체적인 평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는 모두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며 몸으로 행

한대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인 아버지들은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독교인 아버지들은 정신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신문을 읽을 때, 잡지를 읽을 때, 대화에 대해, 그리고 우리의 공상과 환상의 영역에서까지 그리스도인 아버지들은 자신의 정신적인 세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신적인 것은 학문적으로 탁월해야 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더 발전시키고 훈련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도덕적인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 아버지로서 자신이 내리는 결정과 행동과 태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취하는 반응과 일의 동기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자 하는 방향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기독교인 아버지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거룩함은 우리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이요, 의지입니다. 기독교인 아버지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이 사회가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남자답지 못하다는 이유로 감정적인 부분을 얘기하기 꺼립니다. 그러나 기독교인 아버지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랑과 부드러움, 동정심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랑을 표현하는 법 뿐만 아니라 사랑을 받아들이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많은 성인들의 내면에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이 '성인아이'가 결혼생활에서 부부가 충돌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성숙하여 자유함을 얻는 어른이 되길 바라십니다. 우리 내면의 안정감을 위해 때로는 과거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영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기독교인 아버지는 시간을 떼어 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노력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아버지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과 하나님을 향해 큰 비전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놀라운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스도인 아버지들은 이런 자신의 실상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독교인 아버지들이 좋은 가정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자가 노동을 통해 가족을 부양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아버지들은 영적인 위험과 사회로부터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선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아버지는 가정의 잘못된 습관을 바로 잡을 수 있어야 하며 가정의 파괴적이고

잘못된 태도들을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아버지들은 하나님의 신성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의로움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남과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책무

여섯 번째 그리스도인 아버지는 매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힘든 짐이 아니라 놀라운 특권으로 가족들 모두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역할입니다.

끝으로 그리스도인 아버지들은 자신의 책무와 자신과 하나님과의 고나계에 대해서 인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A.W. 토저 박사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된 후 주님의 일꾼이 돼야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아버지들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위한, 사회를 위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은 마귀로부터 세가지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감각적인 시험이요,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아주 센세이셔널한 유혹이요, 세 번째는 세상권력에 대한 영적인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런 세가지 시험에 대한 해답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쓰신 '경배'라는 말은 헬라어로 '입맞추며 나아가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왕중의 왕이신 그분에게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한 복종과 순종을 의미하여 왕이신 예수님께 진실할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노예가 주인에게 행했던 것과 같은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기독교인 아버지들도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삶의 주구너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뿐만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 아버지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 출처 : 온누리신문